

7월1일부터 중학생까지 무료급식 실시

고성교육지원청 · 고성군 협의 ... 제1회 추경예산 중 4,785만원 확보

오는 7월 1일부터는 고성지역의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도 무상급식이 실현돼 학생들의 건강 향상과 학부모들의 부담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전액 무료

지원에 이어 중학교도 전액지원하기로 고성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4천785만원을 관내 중학교에 지원하게 된다.

고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3월부터 중학교까지 지원할 계획

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실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고성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전액지원 실시로 교육여건 개선과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방

지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학교에서 문 제되고 있는 급식비 미납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stigma,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하게 심어 주는 것)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 중학교 급식 지원은 강원도내 다른 시군보다 한 발 빠른 행정으로, 고성 주민들의 교육비 절감에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최신시설에서 더 좋은 성적내겠다”

거진중 사격장 개관 ... 전자식 타켓 4석 등 총 10석 갖춰

거진중학교(교장 백흥기)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별관 2층 사격장에서 김경로 교육장과 고성군의회 의원,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진중학교 사격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에 참석한 김경로 교육장은 축사에서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주신 지역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격부의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훈련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거진중 사격부는 그동안 개인의 발전과 우리 고장의 명예를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속에서 경기력과 기록향상에 도전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성외 사격발전과 전국 사격학교의 메카로 자리 잡을



거진중학교 사격부 선수들이 지난 23일 개관한 사격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이어 거진중학교 백흥기 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사격 훈련장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최신시설로 잘 꾸며진 사격장을 개장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또 “사격부가 최신식 시설에서 더욱 열심히 훈련해 학교의 명예와 지역의 명예를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진을 새마을 부녀회(회장 전상화) 회원들이 행사 음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편 거진중학교 사격장은 4천여만원을 들여 학교 별관의 구과 학실을 구조 변경해, 전자식 타켓 4석과 수동식 타켓 6석 등 총 10석을 갖춘 최신식 실내 사격장이다.

박승근 기자

대학생 120명 휴전선 답사

재향군인회 국토대장정 ... 7월4일 고성 도착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지난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 ‘대학생 휴전선 및 6·25전적지 답사 대장정’을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120명 모집에 1,670명이 신청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120명의 대원들이 참가하며,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6.25전쟁 61주년 행사에서 출정 신고를 한 뒤 10박11일 동안 600km(도보 205km)의 장도에 오른다.

이들은 출정식 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차량으로 서부전선 애기봉 전망대로 이동, 본격적인 155마일 휴전선 답사에 나선다. 주요 답사지역은 도라전망대-김신조 1·21침투로-필리핀군 참전비-평화전망대-노동당사-멸공OP-금성지구전적비-평화의담-편지불지구전투전적비-을지전망대-백골병단전적비-통일전망대 등이다.

답사단(단장 박대수 향군 안보부장)은 4개 소대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건강 및 이동, 진행 등을 담당하는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돼 참가자 전원이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이번 휴전선·전적지 답사에 참가하는 학생 중 군인의 아내이자 역사학도로서 조국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싶다는 참가한 유주연(22세, 한신대)씨는 “남편이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현재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물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10일차인 7월 4일 고성군에 도착해 22사단 신교대-백골병단 전적비-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고 7월 5일 낙산사를 거쳐 8군단 사령부에서 해단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최광호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15]

독립운동가 김운봉(金雲鳳) 1917년 1월 10일 ~ ?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고성읍(高城邑) 동리(東里) 544번지이다.

1938년 4월 일본 동경 소재 중앙대학(中央大學) 예과(豫科) 2학년에 편입하였다.

선생은 1939년 3월 모교인 고성공립보통학교(高城公立普通學校)에 참석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축사를 하다가 고성경찰서에 10일간 구류된 바 있으며 그 후 1942년 9월 일본 중

앙대학 재학 중에 한국인 유학생 주동자 고담용(高湛龍, 제주도 제주 조전 2776) 등 5명과 함께 ‘고문(高文)그룹’으로 위장한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동경(東京) 시내에서 20여 차례의

비밀회합을 갖고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의 양양(昂揚)을 강조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경에 피체(被逮)되어 부산 대구 영주 봉화(奉化) 경찰서로 전전 이송되면서 1년 여에 걸쳐 온갖 고문을 받고 대구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마침내 1944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선생은 당시 27세에 대구형무소에서 2년 10개월 옥고를 치르던 중에 병보석으로

출옥하여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第8卷, 국가보훈처, p.353.

『고성군지(高城郡誌)』고성군, 1998, 보정판, p140.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